

국힘, 돌고돌아 '정진석號'...당 내홍·가처분 등 암초 산적

'악연' 이준석과 관계설정 부담

전대를 결정도 과제

추석 전 비대위 출항 목표 달성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5인) 정진석 의원에게로 돌아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부의장실로 찾아가 정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수차례 설득했다. 결국 정 의원의 수락과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정진석호(號)는 닷을 올리게 됐다.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과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잇달아 직을 고사하면서 새 비대위는 첫스텝부터 꼬이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의 키를 쥐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전 비대위 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비대위를 출범 시

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 비대위의 선장을 찾는 과정이 이른바 '폭탄 돌리기'처럼 진행됐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고사 의사를 밝혔다. 전날까지 선수별 의원간담회를 거쳐 외부 구원투수로 유력하게 떠올랐던 박 전 부의장도 권 원내대표에게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의장은 "당을 잘 모르는데 자칫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민을 토로하며 결국 이날 오전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다.

특히 박 전 부의장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민주당 계열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이력으로 '협치'의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이 당적도 보유하지 않은 외부인사인 데다, 민주당 출신이라 영남 기반의 당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 우

려였다.

실제로 대구·경북(TK)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선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을 불편해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 의원도 이날 비대위원장직 수락 기자회견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한다. 저는 독배라서 더이상 파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 거듭 난항을 겪은 것은 이준석 전 대표발(發) '가처분 지뢰'가 줄줄이 매복된 상황에서 비대위 출범 자체를 놓고 당내 찬반양론이 분분했던 기류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새 비대위는 출범 직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 뒤 수개월 내 치를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의 운영 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짧아지면서, 차기 원내대표나 당대표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 중진 의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부의장도 차기 당권주자군으로 분류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을 하루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완전한 일상 회복 때까지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예비비 500억 태풍 복구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해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해보험금, 재난 지원금 등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정기국회 기간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일선에서 활동한 소방, 해경, 경찰, 군인,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위험 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등 재난 대응 원칙을 거듭 상기시키며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민첩한 후속 조치를 특별히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1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사진)을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5월 25일 이후로 100일가량 공석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

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김여사 특검법' 발의... "국민적 의혹, 더는 못 덮어"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등 겨냥

국정조사까지 '투트랙 전략'

법사위 등 통과 가능성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법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

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끓어올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와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처벌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비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판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수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빠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민주당 거대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참호전 준비"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공세

"추석 민심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은 거대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거나 '방탄 배지'를 달고,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춰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지 바란다"며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 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감원까지 동원했음에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방탄 특검'은 추석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읍시
JEONGEUP-SI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제 15회 **정읍 구절초 들꽃축제**

손수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다정하게, 넘실넘실
꽃처럼 고운 너, 날 보러와요!

일시 2022. 9. 29. ~ 10. 16.

장소 구절초 지방정원(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71~3)

프로그램 꽃밭음악회, 꽃길퍼레이드, 향기&치유 체험, 구절초 상품 판매 등